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그대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하니 기억하라! 그 어떤 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음을!

아기의 탄생은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아기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잔인한 과정을 멈출 수 없습니다.

태양이 그 궤도를 따라 도는 것처럼, 서산의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드리워지나니, 것처럼 인생도 제 갈 길로 가고,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드리워진대네.

아기는 자라서 청소년기를 맞게 되고 자신에게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실수가 있겠습니까? 수행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생은 한 번뿐이고, 미래의 삶은 수없이 많습니니다. 금생의 신기루 같은 안락을 추구하기 위해 수많은 다른 생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죽어가는 사람이 수행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수행에 매진할 시간입니다. 수행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경험은 죽는 순간에 여러분을 돕는 단 한 가지 자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종단 교육개혁불사 안정화에 최선”

조계종교육원, 신년기자회견… “공교육화 나설 것”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올해에도 교육개혁불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승가대학원 설립과 학사 행정 표준화, 출가제도 다양화 등의 사업을 중점 전개한다.

교육원은 1월 2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승가교육 개혁불사는 ‘자비를 구원하고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불교’를 최종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이전의 치문, 사집, 사교, 대교 과정을 초기, 대승, 선불교 등으로 대폭 개편했으며, 염불 의례 과목을 신설해 불교적 신심을 고양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기존 승가 교육을 제도권 공교육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스님은 “도제 양성식으로 진행하던 교육 방식과 환경을 제도권 공교육 형태로 전환해 체계적으로 교육이 진행하도록 대폭 정비하고 있다”며 “현재 개편된 기본 교육과정은 중앙승가대와 지방의 사찰 승가대학, 동국대 불교대학 등에서 전면적으로 수용돼 내실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승가대학원 다양화 및 활성화 △기초·전문·특수 교육기

관 학사행정 표준화 △불교상요의례 정규 교과과정 시행 △청년·특수·단기 출가제도 시행 △다양한 안거제도 도입 △연수교육의 다양화 및 서비스 개선 △승가고시 개선 △승가교육교재 제작 및 연찬회 등 올해 8대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전문 교육 영역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승가대학원은 선학, 율학, 한문불전, 초기불전, 화엄학, 반야중관학 등 8개 분야로

율학·선학 등 승가대학원 설립 기본·전문교육기관 행정 표준화 고려자·청년 등 출가제도 다양화

나눠져 각 교구에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된 ‘한글염불의례교육에 관한 령’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기본교육기관에서 ‘불교상요의례’ 교과목이 편성되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교육원은 불교상요의례 교육을 위해 교재를 편찬 발간하며, 교육은 한글염불지도교수반(8명)과 불교상요의례 지도교수반(12명)이 담당하게 된다.



학인스님들이 강원에서 수학과 있는 모습. 조계종 교육원은 전통 도제 방식이 아닌 제도권 공교육을 승가교육 기조로 삼고 있다.

지난해 높은 호응을 보인 청년출가학교도 확대된다. 올해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7-8월 경 진행된다. 고려자 등에 대한 특수 출가와 단기, 청년 출가 제도는 오는 3월 임시중앙총회에서 입법될 전망이다.

수행가풍 진작을 위해 안거에 삼장원과 염불원을 설치·운영하는 제도 역시 3월 임시 중앙총회에서 입법을 준비 중이다. 현재 중헌중범제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교육분과위원회에 법안이 이송돼 있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출가제도 다변화

는 출가자 감소에 따른 대응책이 아닌 유능한 인재들이 출가자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삼장원, 염불원 도입은 수선안거와 더불어 경율론 삼장과 염불을 수행해 수행가풍을 진작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현응 스님은 “교육개혁불사는 한국불교에 대한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개선하고 보완해 교육개혁불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봉원사 문제 해결, 임기중 가장 큰 과제”

태고종 인공 스님 신년 계획 기자간담회

“2010년 3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촌 봉원사 소유권 합의를 서명식’을 갖고 소유권 분쟁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태고종과 조계종 양 종단은 1950년 분규이후 선암사, 봉원사, 백련사 등 10여개 사찰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벌여왔고, 봉원사의 경우는 양종단 대책위원회가 오랜 기간 지지부진한 협상을 벌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 종단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해 봉원사 소유권 분쟁을 해결한 것이 재인 기간동안 가장 큰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사진)은 1월 22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연두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를 밝혔다. 올 10월 임기가 끝나는 인공 스님은 가장 큰 성과로 조계종과의 봉원사 소유권 협상 타결을 들었다. 하지만 스님은 “태고종과 조계종이 아직도 공동운영하는 선암사는 조속히 해결하려는 조계종측의 의지가 부족해 보여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인공 스님은 “종단의 흥분산인 선암사에 원로 스님들을 위한 노후수행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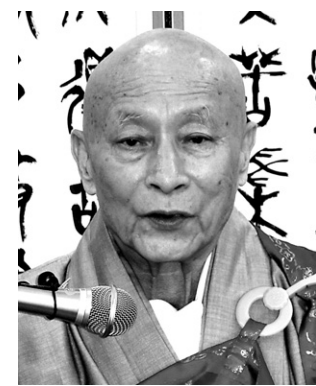
‘기로원’을 건립하려는 계획도 선암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태고종은 또한 올해 사업으로 △중조단 신다례 및 태고문화축제 △전통문화유산 대중화 및 세계화 △영산재 시연 및 문화콘텐츠 사업 △전통불교문화 명인지정 △

원장 선거 앞서 분한신고 예정 용궁사 템플스테이 사찰로 정비

템플스테이 제반 여건 구축 △성보문화재 전수조사 및 중앙박물관 건립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후학전승사업 △불교문화 해외 선양사업 △사회복지사업 중대 △승려분한신고 및 사찰등록 갱신 △해외사업 포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예정인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승려분한신고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총무부장 능해 스님은 “지난해 총회에서 총무원장 선거법을 직간선으로 개정했기 때문에 총도 30명당 1명의 대의원



을 선출하게 돼있어 분한신고가 불가피해졌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종도들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태고종은 인천시와 연계해 인천공항 근처에 위치한 용궁사를 템플스테이 사찰로 정비해 종단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중앙박물관 건립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 스님은 “종단과 종도들이 소장중인 성보문화재 전수조사를 통해 종단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중앙박물관도 건립 예정”이라며 “장소는 교동과 접근성을 감안해 신촌 봉원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은혜·백양·수덕사 등 총회의원 5석 보궐선거 조계종 중선위, 내달 28일 선거

은혜사, 백양사, 수덕사, 직능직 보궐선거가 내달 28일 치러진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어)는 1월 22일 26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제10교구 은혜사는 중앙총회의원 자격, 덕조 스님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장적, 덕조 스님의 사퇴는 해당 교구인 법인 스님의 승적 논란과 관련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은혜사는 이번 보궐 선거를 통해 교구 행정을 정상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공석 중인 7교구 수덕사 중앙총회의원 1석과 18교구 백양사 1석, 직능대표 1석 등 3석에 대해서도 보궐 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열리는 백양사 산중 총회의 구성원도 확정됐다. 구성원은 개정된 산중총회법에 따라 비구 130명, 비구니 26명 총 156명으로 이뤄졌다.

신종일 기자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 축하 국민 대통합 기도회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범종교통합기도회추진위원회는 2013년 1월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을 축하하며 불교, 천주교 및 기독교, 민족종단,

문화계 등이 연합하여 국민대통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국민대통합 기도회”를 주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증명법사단 : 대 법 주 : 영공도성 큰스님, 증명 대 법 주 : 만응도일 큰스님, 경우 큰스님 불교상임대표 : 정각 큰스님, 흥교 큰스님, 가산 큰스님, 해공 큰스님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봉행위원장 석능인 합창 범종교통합기도회추진위원회 이사장 송진호

■ 일 시 : 2013년 2월 2일 오전 9시 - 오후 7시 (불교행사 오후 2시부터)

■ 장 소 :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 주 최 / 주 관 : 국민대통합기도회추진위원회,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 행사 진행 : (주)HN한맥엔터테인먼트

■ 후 원 : (재) 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재) 국제리더쉽스피치문화재단, (사)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대한불교 법연종 법연사, (사) 국제할레루야드, (사) 국제환경문화운동본부, 세계유나프리스교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한국자유총연맹종교특별위원회, 한민족평화통일운동단체총연합회 아가페서울로타리클럽, 황산벌세계무예대제전조직위원회, 한민대학교, 한중교류협회, 법성원,

■ 협 찬 : 삼명종합건설(주), (주)정식품, 한국화보, (주)무비데이(법국민독도영화), 환경TV, 서보산업개발, (주)우주자동차, (주)강인SSD, (주)해피코리아타운, (주)더아산미래를시티

■ 문 의 : 전화 02) 706- 0074 / 팩스 02) 706-0154 / 010-6302-4514 E-mail : sliris@naver.com sambo111@hanmail.net

* 참석 희망하시는 분이 많으실 경우 저희 버스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세계불교문화올림픽 조직 위원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INTEX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0 / 전화 031)810-8114, 팩스 031) 810-8083
• 지하철 : 3호선 대화역 1,2번 출구 도보 10분 • 자가용 : 강변북로 - 자유로 - 미산포IC - KINTEX서문
• 버 스 : 9700, 76-1, 77, 77-2, 9708, 9707, 87, 87-3, 3000, 3300, 150